

경계짓기와 경계넘기

강상우 사회복지 Coram Deo

본고는 경계 짓기와 경계 넘기를 통해서 현실에서의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경계 짓기와 경계 넘기를 통해 실천된다. 거룩한 삶의 실천이라는 경계 짓기를 통해 타자와의 다름/구별됨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경계 짓기로만 끝나지 않고 경계 넘기로 이어지게 된다. 경계 넘기를 통해 나와 다른 타자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지하게 된다. 더 나아가 타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지하게 된다. 경계 짓기는 '거룩하라'는 명령에 근거한 윤리적 판단이라면, 경계 넘기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이며, 전도의 실천인 것이다.

주제어: 경계 짓기. 경계 넘기. 거룩한 삶. 사회적 책임. 전도(선교)

I 들어가는 말

1. 방탄소년단과 아미(BTS-ARMY 현상)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오클라호마주 털사(Tulsa, Oklahoma)의 최대 1만9000명이 입장 가능한 BOK센터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세달반만에 현장 유세를 재개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행사장에 나온 청중들의 수는 1/3에 정도에 불과했었다고 한다. 이는 100만명 이상의 입장권 신청을 받았다는 트럼프 측의 장담과는 다르게 좌석 대부분이 텅 빈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주체/집단이 조직적으로 '노쇼(No Show)'에 나서게 됨으로써 트럼프에게 굴욕을 안기게 된 것이다. 털사의 트럼프 선거 유세에 노쇼에 나선 이들은 누구일까? "왜 방탄소년단(BTS) 등 K-팝 팬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행동에 나섰다"라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South China Morning Post, 南華早報)의 23일자 [2020.06.23.] 기사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방탄소년단의 미국 팬들이 중심이 되어서 벌어진 정치적 이벤트였던 것이다. 트럼프의 '차별에 대한 반감'이 노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선 K-POP의 대표주자격인 방탄소년단(BTS, Bulletproof Boys)의 팬덤(fandom)을 아미(ARMY, Adorable Representative MC for Youth)라고 부른다. 시쳇말로 ARMY는 BTS의 팔로워(follower)인 것이다.¹⁾ BTS와 ARMY와의 특별한 관계를 주목한 하경현 기자는 "단지 좋아한다, 안한디의 기호를 떠나 신념을 공유하고 가치를

나누는 동반자와도 같다”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신광철, 2022: 16 재인용) 일부 연구자들은 BTS와 ARMY와의 관계를 유사종교적 현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BTS로 대표되는 오늘날 아이들은 그들을 사랑하는 팬덤에게는 일종의 신적 존재이다. 이러한 표현이 다소 지나친 느낌은 있으나 팬덤이 스타를 사랑하는 모습에는 분명 신도들이 신을 추앙하는 열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BTS의 팬덤이 유사종교적 현상을 보인다”(에드워드 아이런·이경원, 2022: 66; 조수미, 2022: 2198)²⁾ 조수미는 아이런(Edward Irons)과 이경원이 팬덤이 지닌 유사종교적 현상이라는 통찰을 인정하면서 가락국 건국신화와 ‘BTS-ARMY’ 사이의 유사점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한다. “가락국과 ARMY가 일종의 부족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신적 존재가 수로왕과 BTS라고 할 때, 가락국 건국신화와 ‘BTS-ARMY’ 사이에는 의미 있는 유사점이 발견된다”(조수미, 2022: 2197).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이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성지순례’(pilgrimage to the Holy Land, Bangtan tour, BST tour, ARMY Pilgrimage)³⁾로 불리워지는 문화 현상이다. “특정한 장소가 순례라는 행위를 통해 순례 공간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한 변화가 의미 내지는 가치의 공유와 확산이다. ‘BTS가 가면 아미도 간다’를 모토로 축적된 거대한 알고리즘이 그 장소들을 ‘성지’로 묶어내는 계기를 추동하였고, 그러한 성지를 방문하는 행위에 ‘순례’라는 의미가 부여되고 순례의 과정을 계기로 소통하면서 가치를 향유하고 발산하기에 이른 것이다.”(신광철, 2022: 18)⁴⁾ “팬덤이라는 ‘새로운 종교’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순례라는 것이다.”(에드워드 아이런·이경원, 2022: 67)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팬덤/팔로워인 아미와의 긴밀한 관계를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행11:26)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인 크리스티아노스(Χριστιανος, Christianos)라는 말 자체가 어원적으로 그리스도(Χριστος)를 따르는 사람(~tav

1) 윤창수, “왜 미국 방탄소년단 팬들은 트럼프 선거 유세를 방해했나” <서울신문> (2020.06.23.); 권영미, “트럼프 들었다왔다 ... 아미 주도 K팝팬들 ‘유세장 노쇼’ 왜?” <뉴스1> (2020.06.23.)

2) “팬덤은 여러 면에서 종교와 유사하다. 미디어 학자인 제니퍼 비커 다이크(Jennifer Bickerdike)는 종교와 팬덤이 모두 추상적이고 ‘에티(etic)’한 용어라고 말한다. 실제로 현실에서의 종교는 팬덤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두 분야는 모두 헌신을 기반으로 한다.”(에드워드 아이런·이경원, 2022: 66; Bickerdike, 2016: 6 참조); Bickerdike, Jennifer Otter (2016). The Secular Religion of Fandom. London: Sage.

3) “성지순례는 본디 종교적 영역에서 쓰여 온 개념이다. 그런데 이 개념이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콘텐츠 투어리즘을 통해 문화적 순례 개념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 아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BTS 성지순례는 ‘찾아가기’와 ‘따라 하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신광철, 2019).

4) 이자영, “‘방탄’이 ‘픽’한 곳, 전세계 ARMY에게 성지 되다”. <부산일보> (2019.06.17.); 이지현, “탐구하고 여행하며 방탄소년단 즐기는 팬들” <어린이동아> (2019.04.18.); 박인탁, “천년고찰에 방탄소년단 뜨자 사찰도 핫 플레이스” <불교신문> (2019.03.04.); 그 이외에도 다음의 기사 등을 참고하라. “오빠들 뮤비 속 그 장소로... 방탄 순례단”, “방탄소년단이 찍으면 여행지도 대박”, “방탄소년단이 방문해 ‘핫’해진 경주 첨성대·보문단지”.

ος, ~ianos)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쳇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Followers of Jesus Christ, 참조 “who are faithful **followers of Christ Jesus.**” [Ephesians, 1:1, NLV, New Life Version], 강조는 본 연구자)⁵⁾.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자문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다. 본고의 목적은 바로 현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구하는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경계 짓기와 경계 넘기를 실천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로 살아간다는 것인 경계 짓기와 더불어 경계 넘기의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와 더불어 경계 짓기와 경계 넘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본고의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와 범위, 그리고 연구한계와 용어 정의

연구문제 1: [경계 짓기와 경계 넘기의 성경적 근거] 경계 짓기와 넘기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경계 짓기] 경계 짓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연구문제 3: [경계 넘기] 경계 넘기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에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성경의 3개 명령 즉, 대명령·문화명령[창조명령]·대위임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계 짓기와 경계 넘기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강상우, 2011a: 19-22; 강상우, 2017: 5-8; 함승수, 2020 참조)⁶⁾ 연구문제 2에서는 경계 짓기란 구체적으로 성도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대해 ‘거룩하라(be holy!)’는 명령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참고로 조정호 목사가 사랑을 거룩함의 변주로 이해하였던 것처럼 사랑과 거룩함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조정

5) “Also it was in Antioch that the talmidim for the first time were called ‘Messianic.’”(Acts11:26, CJB, Complete Jewish Bible), “And it was in Antioch that the talmidim [the disciples, μαθητὰς, mathētas 제자들] were first called Ma’aminim HaMeshichiyim (Messianic Believers).”(OJB, [] 본 연구자 추가)

6) 명령은 응답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명령은 성도와 교회 공동체에게 응답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H.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는 인간을 ‘The Responsible Self’로 규정한다. “인간을 ‘responsible self’로 규정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응답하는 책임적 존재’와 ‘하나님 및 이웃과의 지속적인 대화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응답해야 하는 책임적 존재’를 의미한다. 리처드 니버는 책임적 성격을 교회에도 적용한다. ... 그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존재하는 모든 이웃에 대한 책임을 저야함을 강조한다.”(김희수, 2016: 26) 참고로 책임적 자아(responsible self)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응답/대응/대답+할 수 있는 자아(response/respond+able self)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호, 2020: 128)⁷⁾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대명령은 거룩하라는 명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연구문제 3에서는 거룩한 삶을 통해 경계 짓기를 한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전도/선교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경계 넘기를 한다[越境]는 점과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성경을 바라볼/이해할 때에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특정한 성구만을 전거(典據)로 채택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라도 지양(止揚)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이다. “증거자료를 취택하는 방법’(Proof-Text Method)으로 만들어낸 목록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며, 전체적인 성경 메시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신경규, 2015: 151; 박보경, 2008: 79; Verkuyl, 1978: 92)⁸⁾ 본고에서 경계 짓기와 경계 넘기를 위해 채택한 3개의 명령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명령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를 선택한 것임을 밝힌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고자 한다. 경계 짓기(boundary-building)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聖徒이나 교회 공동체로서의 정체성(identity)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근거하여 ‘거룩하리’는 삶을 실천하라는 것에 근거를 둔다. 이에 비해 경계 넘기(boundary-crossing)란 경계 짓기 즉 정체성을 확립한 성도/교회 공동체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근거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과 더불어서 전도/선교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II 경계 짓기와 경계 넘기: 성경적 근거와 더불어 그것이 지닌 함의

1 경계 짓기와 경계 넘기의 성경적 근거

7) “본 연구는 거룩함이 사랑으로 변주되는 것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조정호, 2020: 128);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11:45; 19:2; 사5:16 등).”(윤영돈, 2022: 55, 23번 각주)

8) “놀랄 것도 없이, 우리는 교회의 성서적 모델을 변질시키면서 우리의 시도를 ‘본문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proof-texting)로 뒷받침하는데 숙련되어 왔다. Proof-testing이란 우리의 견해가 성서와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서에서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거나 관계없는 구절들(종종 문맥과 상관없는)을 뽑아내는 버릇이다.”(Viola and Barna, 2011: 41). Verkuyl, Johannes (1978). Contemporary Missiology. Grand Rapids MI.: Eerdmans.; “어떤 실천이 ‘성경적’이라는 표현의 참 의미는 성경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실천이 성경이 계시하는 세계관을 충만하게 담고 있다는 의미이다.”(김규보, 2021b: 34).

9) “Augustine은 삼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의 질서로서 ‘카리타스(caritas)’와 세속적 대상을 향하는 ‘큐피디타스(cupiditas)’를 구분한다. 큐피디타스가 본질적으로 세상의 어떤 대상을 통해 만족과 유익을 얻는 자신을 사랑함이라면, 카리타스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랑하라는 사랑의 질서(ordō amoris)를 세우는 것이다.”(김규보, 2021b: 54)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3개의 명령이 있다. ‘사랑하라’는 대명령(The Great Commandment, 마22:37-40), ‘전도하라’는 대위임명령(The Great Commission, 마28:18-20),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개인적으로 ‘청지기로 살라’로 명명하고자 한다.)는 문화명령(또는 창조명령, The Cultural Mandate, 창1:28; 2:15)이 그것이다.

사랑하라는 대명령은 십계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성경은 사랑=하나님 사랑+이웃 사랑, 동시에 하나님 사랑=이웃 사랑, 마25:40 참조¹⁰)¹¹) 예수님이 율법사로부터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라는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다.(마22:37-40)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그리고 나서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성경 전체—물론 여기서 성경은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말한다.[“the Law of Moses and the Books of the Prophets: The Jewish Scriptures, that is, the Old Testament.”(CEV, 마22:40, h)註 참조]¹²)—의 강령(綱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¹³)¹⁴)

1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이니라[마25:40]는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과(and)’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즉(equal)’이라는 동일성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이창희, 1998: 316)

11)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최소한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나 자신이 신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는 것이다. 나의 한계, 약함, 그리고 약함을 깊숙이 뉘우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이다. 두 번째는 나를 포함한 악인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로서의 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신의 모습은 가장 감동스러운, 그리고 (어쩌면 유일하게) 경배할만한 신의 모습이다. 이러한 신의 사랑의 모습으로부터의 감동은 우리 안에 있는 얼음처럼 차갑고 딱딱한 미움, 질투의 껍질을 용광로처럼 녹여낸다. 그러한 감동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을 따라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또한 이렇게 신의 모습을 알고 감동할 때 우리에게는 사랑할 뿐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우리가 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 분과 함께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 이해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철학에서 신은 종종 전지전능 그리고 전선한 신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신의 전지전능전선함은 사실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는 신의 모습이다. 하지만 기독교에서의 신의 사랑은 단지 전선함을 넘고 신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전지전능을 역설적으로 넘는 섬김과 희생을 보여준다.”(이영환, 2021: 87)

12) “On these two mitzvot[하나님이 명령한 계명, commandment] hang the entire Torah and the Neviim.[ὁ νόμος … καὶ οἱ προφῆται, ho nomos … kai hoi prophetai.]”(Matthew22:40, OJB [] 본 연구자 첨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이 물음은 ‘경계 짓기’를 통해 본고에서 중심으로 후술할 부분이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성도[그리스도인]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거룩한 삶으로 이어진다. 즉 하나님/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Imatio Dei/ Imatio Christi, The Imitation of God/ the imitation of Christ Jesus). 바울 사도가 자신의 서신에서 직설법(Indicative)과 동시에—대부분 뒷부분에 때로는 앞부분에—명령법 (Imperative)을 사용해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거룩한 삶을 살 것에 대한 사도의 요청인 것이다. 바울 사도는 직설법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았지?(Indicative).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앞으로 이런/거룩한 삶을 살아라(Imperative)”고 명령법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마이클 S. 호튼 (Michael S. Horton)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승리의 직설법(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는 선포) 뒤에는 명령법(거룩하다는 사실에 모순하지 않는 태도로 생활하라는 명령)이 따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지위(직설법)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이는 거룩함의 진보(명령법)에 따라 결코 좌우되지 않지만, 참된 신자라면 누구나 이 두 가지를 지녀야 한다.”(Horton, 2019: 264)¹⁵·¹⁶ 직설법에 기반을 둔 명령법에 대한 준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이는 결과론적으로 성도들에게 정체성 즉 ‘경계 짓기’를 형성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또한 이웃을 향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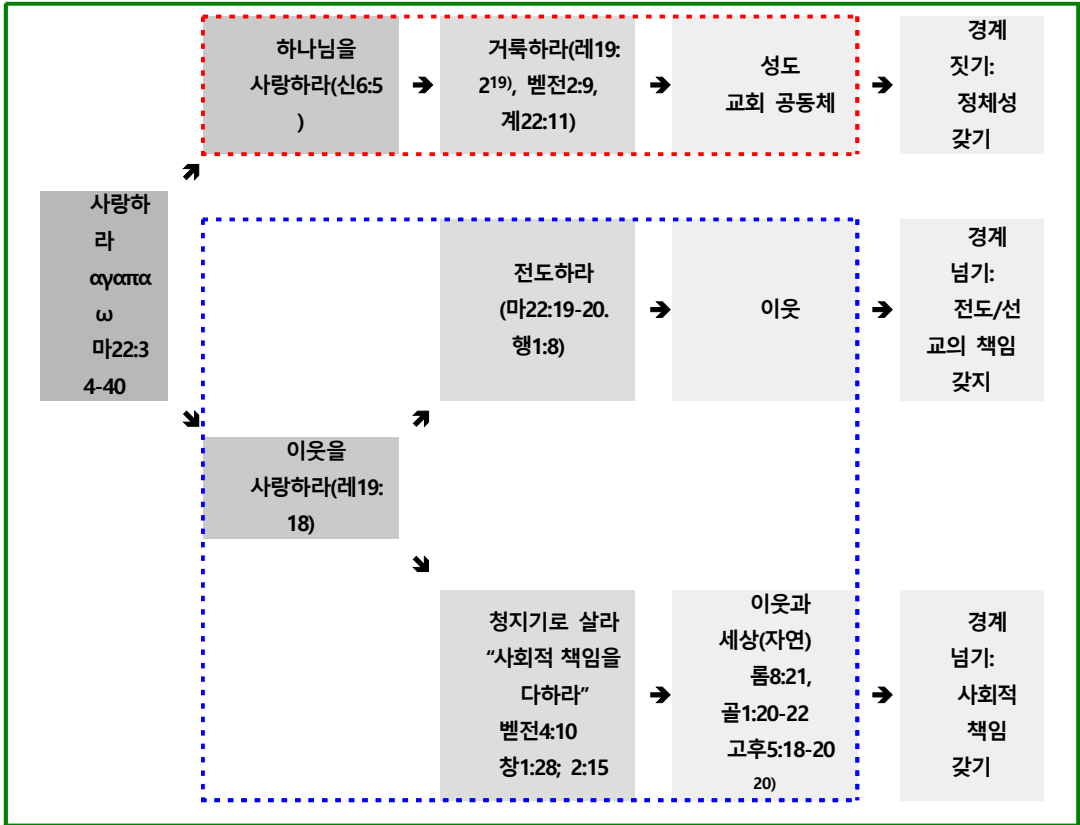
-
- 13)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신6:4-6, <개역개정>), “4 Listen, Israel: Yahwehis our Elohim. Yahweh is the only God. 5 Love Yahweh your Elohim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6 Take to heart these words that I give you today.”(Deuteronomy 6:4-6, NOG; Names of God Bible)
- 14) “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19:18, <개역개정>) “18 Never get revenge. Never hold a grudge against any of your people. Instead,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I am Yahweh.”(Leviticus 19:18, NOG; Names of God Bible), “Thou shalt not avenge, nor bear any grudge against the bnei ammecha (children of thy people), v’ahavta l’re’acha kamocho (but thou shalt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I am Hashem.”(OJB)
- 15) “바울 서신의 구조는 전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다. 크게 볼 때 앞에서는 기독교 교리, 뒤에서는 기독교 윤리가 나온다. 전체 16장으로 된 로마서 역시 1-11장에는 ‘교리’가 나오고, 12-16장에서는 ‘윤리’가 나온다. 물론 교리를 논하면서 윤리를 다루지 않거나, 윤리를 논하면서 교리를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바울 서신의 큰 구조는 교리와 윤리로 나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리와 윤리, 두 가지 모두 ‘복음’이라는 사실이다. 교리가 직설법으로 된 복음이라면, 윤리는 명령법으로 된 복음이다. 기독교 신앙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 그렇기에 우리는 바른 교리(orthodox)와 바른 실천(orthopraxis) 모두를 붙잡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우병훈, 2019: 11-13).
- 16) 철학자 레일턴(Peter Railton)은 “어떤 사람의 선(good)에 대한 개념이 어떤 식으로든 그를 실천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처구니없이 공허한 개념이 될 것이다.”고 한다.(Railton, 1986: 9; Kernohan, 2011: 139 재인용). Railton, P. (1986). "Facts and Values." *Philosophical Topics*. 14(2). (1986). 5-31.

무엇일까?(이 부분도 ‘경계 넘기’를 통해서 본고에서 중심으로 후술할 부분이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첫 번째 방향은 선도/선교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영혼/他人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간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개역개정>) 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成育身, Incarnation)은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서 분부(分付)하신 것도 바로 ‘전도하라’는 대위임명령(大委任命令, The Great Commission, 마28:18-20)이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9-20)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도 바로 전도하라는 것이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경계 짓기를 한 성도는 ‘진도하라’는 대위임명령을 실천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경계 넘기를 하게 된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의 또 다른 방향은 문화명령(또는 창조명령, the cultural mandate)에 근거하여 ‘청지기(Oikonomos)¹⁷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 과거 문화명령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때 창조세계에 대해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청지기적 삶은 모든 사회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하는데 이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삶의 영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의 영역이 바로 모든 사회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네덜란드에서 수상을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단호하게 “창조세계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는 나에게 속해 있다!’ 하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 치도 없다.”¹⁸(Mouw, 2004: 167)고 선언한 것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성도는 창조세계에 대해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경계 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그림: 경계 짓기와 경계 넘기의 성경적 근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7) 청지기(廳지기)는 淸/攄/聽지기 이어야 한다. 청(廳, οίκος/κοσμος)지기는 맑을(淸/靑) 마음을 가지고[거룩한 삶], 하나님께 청(攄/求)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nomos, νομος)을 듣는(聽) 이어야 한다; “인간은 창조주를 향한 책임을 부여받은 청지기이다”(홍순원, 2018)

18) “There is not one square inch of the entire creation about which Jesus Christ does not cry out, ‘This is mine! This belong to me!’”

[그림: 경계 짓기와 경계 넘기의 성경적 근거: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실천]



19) (Publica Hebraica Stuttgartensia, BHS) אלהים קדוש ואת ישראל קדוש: אלהים קדוש:

"Ye shall be holy: for I the LORD your God am holy."(Leviticus 19:2, KJV)

cf. אלהים קדוש ואת ישראל קדוש: אלהים קדוש: אלהים קדוש (사6:3, BHS)

20) 로마서 8장 21절과 골로새서 1장 15-20절 등을 잘 살펴보면 피조 세계의 고통과 구원에 대한 것들이 인간과 연대/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창세기 3장, 로마서 8:18-25, 골로새서 1:15-20, 에베소서 1장, 요한계시록 21-22장에는 인간이 창조 세계와 더불어 죄짓고 고통받는 현실과 창조세계와 더불어 구원받게 될 비전이 묘사되어 있다. 자연과 교감하지 못하고 자연을 단지 인간에 의해 가공되고 개발되어야 할 원료로 바라보게 된 것 자체가 죄의 결과 중 하나이다. 인간이 짓는 죄 중에는 그 파괴적 여파가 창조세계에까지 미치는 것이 많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부활 능력에 힘입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자연과 다시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골로새서의 '화목'(ἀποκαταλλάξαι)이나 에베소서의 '통일'(ἀνακεφαλαιώσους)이 표방하는 바는 구원의 절정이 개인들의 천국 진입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만물이 교감하고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다."(조재천, 2022: 97-98)

2 경계 짓기: 거룩하라(Be holy!)

마일렌버그(J. Muilenburg)는 레위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사랑을 의미한다고 본다(조정호, 2020: 126)

앞서 전술했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시쳇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거룩함을 실천하는 것이다.(레19:2; 계22:11 참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서신을 받는 이들을 향해서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엡1:1, <개역개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뉴라이프버전(NLV, New Life Version)』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팔로워”(“... This letter is to those who belong to Christ in the city of Ephesus and to you **who are faithful followers of Christ Jesus.**” [Ephesians 1:1, NLV])로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phesians 1:1”, <https://www.biblegateway.com/>)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²¹⁾ 이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성도(聖徒)라고 부르는 명칭에서나 교회(教會)라는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성도를 뜻하는 헬라이어 단어 하기오스(ἅγιος, hagios)가 세상과의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회를 의미하는 구약과 신약 단어들의 어원도 분리(分離)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도 바로 이들의 공동체가 거룩한 무리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약에서 ‘회중’(신12:6)으로 번역된 K(Q)HL의 경우도 ‘부르다’(to call, 콰할/총회, KaHaL/QaHaL: קָהָל)를 의미, 신약에서 교회로 번역되고 있는 에클레시아의 경우도 ‘밖으로 부르다.’(to call out, ek+kaleō=ekklēsia)를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성경에 언급된 교회개념을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 ** (* ***)’]로 회중

21) 거룩한 삶은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표현을 빌리면 올바른 삶(upright lives)을 의미하며 이는 성도의 성도됨을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됨을 말한다. 거룩한 삶 즉 올바른 삶을 통해 경계 짓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계 넘기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올바른 삶이란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윤리적 탁월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교회됨이란 무엇인가?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교회를 교회로 알게 하는 표식이 있다면, 성례(sacraments)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선포되며 올바른 삶(upright lives)의 모습이 있는 곳이다.”(문시영, 2009: 216-217; Hauerwas, 2006: 107), “올바른 삶이란 교회가 교회다워짐으로서 시민사회가 본받고 따를만한 윤리적 탁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는 사회에 윤리를 제안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스스로가 사회윤리와 사회전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김희수, 2016: 25; Hauerwas, 2006: 100; 문시영, 2009: 216) Hauerwas, Stanley (2006). The Peaceable Kingdom :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성경적 근거로는 출 12:6, 민 14:5, 렘 26:17절 등에 나타난다.²²⁾ LXX에서는 ‘συναγωγή(쉬나고게)’로 번역되었고, 때때로 ‘ἐκκλησία(에클레시아)’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신약성경에서는 교회를 역시 ‘ἐκκλησία(에클레시아)’라고 불리웠으며, 약 117번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ἐκ 에크(~로부터)와 καλέω 칼레오(부르다)에서 유래되었으며, ‘불러낸 자들(의 전체)’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에클레시아 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약교회의 구속사적인 의의가 담겨져 있다고 헤르만 리텔보스는 말한다.”(정은배, 2018: 255, []은 불분명한 것 같아 ‘*** ***(** ***)’으로 처리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כְּהַל אֲדָתֵךְ, kehal ‘adat²³⁾를 잘못 표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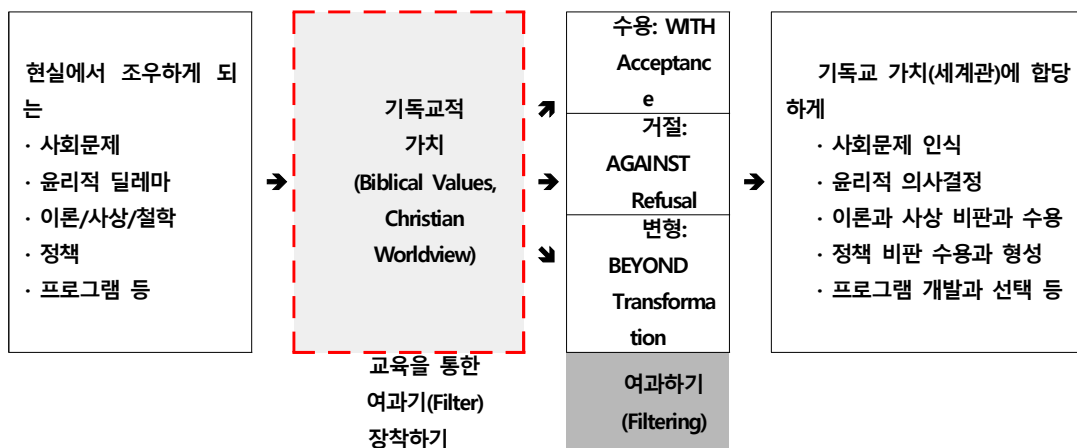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경계 짓기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체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좌표 찍기/표시[座標表示]로 이어지게 된다. 일종의 분별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세포가 세포막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세포막(細胞膜, cell membrane)²⁴⁾은 세포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반투과성 막인 동시에 선택적 투과성 막으로 세포 밖 물질의 출입을 조정하는 기능을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이다.(選擇的 透過性) 다른 예로 표현하자면 정수기의 여과기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룩한 삶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느 것이, 무엇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성경적 가치[基督教世界觀]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거룩한 삶을 통해 형성된 성경적 가치는 일상의 사회문제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試金石/濾過器로 작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상우(2011b)는 기독교세계관이라는 여과기 구비(Equipped with filter)를 통한 ART PROCESS(Filtering process)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였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독교세계관을 필터로 삼아 수용·거절·변형 과정을 행하는 것이다. 기독교세계관 즉 성경적 가치를 기준으로 기준에 합당한 것은 수용(A, acceptance)을, 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R, refusal)을, 그리고 때로는 기준에 맞게 변형(T, transformation)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상우는 이런 의미에서 ‘성경적 가치’ 가르치기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던 것이다.(강상우, 2022: 41-42 참조) 이를 [그림: 수용·거절·변형 과정(A·R·T PROCESS: WAB)]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2) “And it will be with you for mishmeret (examination, checking for blemishes) up until the fourteenth day of the same month; and kol Kehal Adat Yisroel shall slaughter (shachat) it in the afternoon [before dark].”(Exodus12:6, OJB), “Then Moshe and Aharon fell on their faces before Kol Kehal Adat Bnei Yisroel.”(Numbers14:5, OJB); <https://www.biblegateway.com/>

23) כְּהַל אֲדָתֵךְ, kehal ‘adat yisrael; <http://app.alphalef.com/>

24) “세포막”,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D%8F%AC%EB%A7%89>.

[그림: 수용·거절·변형 과정(A-R-T PROCESS: WAB)]



자료: 강상우(2022:42) 약간 수정함

경계 짓기를 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론적으로 사회문제 등에 대한 가치판단, 즉 좌표 표시로 나타나게 된다. 좌표 표시(찍기)는 세상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자아(自我)와 비아(非我)로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 짓기를 위한 좌표 찍기인 신앙적 가치판단에 대해서 혐오(嫌惡)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통/정통주의적 시각에 의하면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Anti-Gay)하는 것은 경계 짓기의 하나로 성경적 가치에 근거한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혐오하는 무관한 것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으로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조우(遭遇)하게 되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가치판단은 경계 짓기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세상과 교회 공동체 사이에 대립되는 사회적 이슈들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낙태문제(Pro-life, Pro-choice), 동성애 문제(Pro Gay, Pro Hetero), 자살의 문제와 안락사(존엄한 죽음 vs. 방조된 자살)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들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말했다고 전해지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Life is a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라는 말처럼 탄생(B, birth)과 죽음(D, death)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떤 선택(C, choice)을 했었고/하느냐/할 것이냐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카를 T. 야스퍼스(Karl Theodor Jaspers)의 “나의 결단을 통해 난 본래적인 나 자신(was Ich bin)이 된다”(Jaspers, 1989: 22)라는 진술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계 짓기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나 교회 공동체가 성경적 가치/기독교세계관과 대립되는 사회문제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 밖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왜냐하면 그러한 극단적인 주장/발언을 하는 이들을 가끔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슬람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 삼는다면—이와 같은 행태는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기독교로 불리워지는 이들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낙태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낙태를 행하는 병원이나 의사들을 공격하는 뉴스들을 접할 수 있었다—대립되는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일반 사회인들에게 강요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슬람과 관련된 문제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는 히잡 착용 문제와 여성할례 문제다. 이슬람 국가가 아닌 세속국가에 사는 무슬림들이 이슬람법(샤리아, Sharia[h], شريعة)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들에게 물리적/비물리적인 강압적인 행동/폭행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세속국가에 사는 이들이 딸아이들에게 여성할례를 강제적으로 행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샤리아의 규정을 세속국가의 무슬림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이란에서 히잡의 문제로 발생한 시위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란은 이슬람국가로 샤리아가 적용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히잡의 문제로 발생한 세상의 눈은 따갑기만 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종교에 관한 규정은 강압적인 강요가 아닌 개인의 신앙/믿음에 기반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행해져야 할 문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립되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는 것일까의 문제다. 대립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광장 등에서 반대하는 피케팅(picketing)과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로 들어 낙태의 경우 왜 생명(Pro-Life)보다도 임부의 자기 선택권(Pro-Choice)을 주장하는 것일까? 연구 시기가 조금 있지만[出版年式이 좀 있지만] 김용화 교수의 “낙태죄와 낙태권에 대한 소고”를 살펴보자. 김용화 교수는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의 충돌을 전제하는 낙태에 관한 논쟁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국가나 사회가 복지시스템으로 임부 및 새 생명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낙태율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없이 개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낙태를 결정한 임부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낙태는 임부(여성)가 태아의 생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이후의 양육, 보호 등에 대한 절대적 책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김용화, 2013: 148)

임부들이 왜 낙태를 시도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임부들이 낙태를 시도하려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낙태가 출산 이후의 보호와 양육 등에 대한 책임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비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지만 이와 더불어 왜 동성애자들이 동성결혼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필요(needs)를—성경적 가치를 해치지 않는 가운데—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면,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대한 요구를 무디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의 근거를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를 통해서 동성애 관계를 지닌 이들이 파트너와 공동생활을 유지하는데 시급한 필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실에서 이들이 파트너 관계 및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수술등의 등 의료과정에서 가족으로 권리행사(67.5%)’이고,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 부양-피부양 관계 인정’(44.6%), 동성커플에게 입양 허용(37.4%), 임대차 승계 혹은 임대주택 신청에서 가족 인정(29.1%)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 그 이외에도 ‘각종 보험/금융상품에서 가족 혜택(27.6%)’,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배우자 승계(19.9%)’, ‘연말정산 등 세제 혜택(11.3%)’, ‘헤어질 때 재산분할 등을 청구(10.7%)’의 순서로 나타났다.(차선자, 2017: 94, 17번 각주)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된다면 과거보다 적극적/법적으로 동성결혼에 대해서 보호해야 하는 기조로 가게 될 것이다. 법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동성애자거나 친동성애자들은 결혼제도와 관련된 것들을 대해서 동성결혼에도 준용(準用)하도록 하는 목소리를 더 높이게 될 것이다. 만약 위의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동성애자들의 요구 사항들 중에서 성경적 가치와 대립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들을 실행하게 된다면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목소리는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참고로 신영현(2016)이 ‘미국연방대법원의 동성혼 관련 주요 판결’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는 ‘United States v. Windsor’(2013) 소송의 주요 내용이 된 것도 돈/금전 즉 ‘상속세 면제 혜택(estate tax exemption)’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에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하나님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되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완전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실은 대부분 완전이나 최선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성도는 차선(次善, the second best)이나 차악(次惡, the less of two evils)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와 관련된 방법이 최선(the best)이라면 한발 물러나서 성경과 상반되지 않는 요구들에 대해서 들어주는 것은 차선이며 최악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구절벽이라는 단어가 말해 주듯이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인구감소는 그저 노동인구가 감소하는구나, 또는 피부양자의 인구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겠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구의 감소! 참 심각한데, 그렇다면 인구를 증가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로 이어지게 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할 필요성으로 강하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성경적 가족제도와 심각한 갈등을 발생케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사회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경계 짓기가 지역/空間의인 것이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선민과 선별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상과의 공간적 구별 짓기를 낳았다. 자의적 공간적 구별 짓기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공간적 구별 짓기/隔離가 행해지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토(Ghetto)의 경우가 그것이다. 타인의 강제력에 의해서 형성된 경계 짓기/격리가 때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의적인 형태의 경계 짓기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이다.

게토는 다른 집단에 대한 공포로 인해 고립으로 떠밀린 특수한 집단—공동체이다. ... 알려져 있는 것처럼 게토는 원래 유대인 격리 지역을 말한다. 1516년 이탈리아, 베네치아 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내린다. “유대인은 모두 게토에 있는 집단거주지에서 공동으로 살아야 한다. 문은 아침에 열리며 자정에 보초병이 단아야 한다. 자정 이후에 유대인은 밖을 다닐 수 없다. 보초병에 대한 급료는 유대인들이 지불해야 한다.”²⁵⁾ 게토는 장벽으로 둘러싸이고 밖으로 연결된 2개의 통로에는 보초가 세워졌다. 게토는 유대인의 노동력과 경제적 역할을 최소화하나마 활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혐오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전략의 소산이었다. 그러니까 게토의 근인은 바로 이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유대인들이 게토에서의 거주를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신들을 혐오하는 그리스도교인들과 이슬람교도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들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소외와 보존은 고립의 두 얼굴이다.(김창현, 2013: 366, 369)²⁶⁾

25) 우광호, “유대인 이야기(54)”, <가톨릭신문>(2010.04.04.):<https://blog.naver.com/ljsj581800/90087486213>

26) “유대인들의 ‘자기 인식’은 ‘배타성’과 ‘특이성’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구약성서와 초기 유대교 문헌들이 이를 증언해주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선민의식과 혼합 결혼의 금지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 ‘자기 인식’과 ‘타인 인식’은 정체성의 문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를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고 다루고 수용하고 이용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출발점은 나의 ‘다름’과 타인의 ‘다름’을 모두 진지하게 인식하는 것이다.”(박성호, 2022); “베네치아인들은 유대인과 동일한 도시공간에 공존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추방이 아닌 격리하는 방법이었다. 유대인들이 베네치아에서

자의적이든 타의적 강제이든 간에 문제는 게토와 같은 지리/공간적으로 경계 짓기(劃界)/격리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강상우가 자신의 책 『이슬람 다시보기 I: 극단적 환원주의 도식 뛰어넘기』에서 종교인들의 지리적인 경계 짓기와 상징/기호적 구별 짓기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폭력을 지적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과거 유대인의 역사를 생각해 보라. 유대인의 역사는 게토(Ghetto)의 역사다. 사실 이탈리아 어인 게토는 유대인들 때문에 만들어진 단어이듯이 말이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구별했고, 때로는 다른 나라의 국민들에 의해서 구별되어졌다. 그곳이 바로 게토다. 문제는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폭력의 장소로 변하였던 곳이 바로 게토라는 점이다.(참고로 과거 LA폭동 때에 코리아타운이 폭도들의 목표로 변하면서 한국인 거주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도 집단거주가 지니는 문제점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슬람의 집단거주이든 이민자들의 집단거주이든 이러한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이는 히잡(hijab)과 같은 것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엄익란 박사가 인용하고 있는 2014년 영국 테시드(Tesside) 대학교의 연구 결과다. 2014년 영국 테시드(Tesside)대학교에서 행해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슬림 여성은 의상 때문에 무슬림 남성보다 더 자주 이슬람 혐오주의 관련 범죄에 노출된다고 한다.²⁷⁾ 이 연구에 의하면 이슬람 혐오 관련 범죄 피해자의 54%는 여성이며, 가해자의 80%는 10대와 30대 사이의 남성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혐오 범죄가 남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반면 이슬람 혐오 범죄는 남성이 여성에게 가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 연구는 낯선 이국땅에 살고 있는 무슬림 여성이 이민자, 여성, 그리고 무슬림이라는 삼중 고통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히잡을 선택한 여성이 이슬람 혐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시사한다(엄익란, 2015: 121)(강상우, 2021)

그런 의미에서 경계 짓기로서의 게토화(Ghettoization)는 지리적 공간적인 경계 짓기나 히잡이나 십자가[육체적 할레]·키퍼(Kippah) 등 상징/기호를 통한 경계 짓기(visible identity marker)와 같은 가시적(可視的) 경계 짓기보다는 삶을 통한 윤리적 측면에서의 게토화, 즉 비가시적 경계 짓기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웃과의 삶에서 종교적 가르침에 충실함을 통한 거룩함을 실천하는 경계 짓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인 그리스도

격리된 이유는 그들이 질병을 퍼뜨려 기독교 사회를 오염시키는 육체적 똬으로 인식한 편견 때문이었다.”(이호상·남영우·김영호, 2010: 109).

27) Albawaba. (2014, June 29). “Study Reveals Women are Targets of Islamophobic Hate Crimes more Frequently than Men” www.albawaba.com/editorchoice/islamophobia-women-586808.

인에게 사랑하라는 대명령은 먼저 하나님께로 향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도를 뜻하는 헬리어 하기오스라는 단어와 교회를 뜻하는 에클라시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거룩한 삶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누군가라는 경계 짓기로 드러난다. 성경적 가르침에 기반하여 당면하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필터링(A·R·T PROCESS)을 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게 한다.

만약 경계 짓기로 신앙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오늘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신앙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로 끝나게 될 것이다. 경계 넘기로 이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공적 신앙의 구현이 어려워지게 된다. 로날드 J. 사이더(Ronald J. Sider)가 지적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복음주의자들이 낙태 금지, 인락사 금지, 가정문제 등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출생 이후의 복지, 빈곤층에 대한 배려, 환경문제, 사회·정치적인 문제 등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김희수, 2016: 22; Sider, 2008: 19)²⁸⁾ 이는 스스로 하나님을 구속주(救贖主/救世主)로만 보고 창조주(創造主)되심을 부정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속주이지만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경계 짓기는 자연스럽게 경계 넘기로 월경을 하게 된다. 신앙의 사사화가 아닌 공적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 경계 넘기가 더욱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삶이라는 경계 짓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경계를 넘을 때에는 경계 밖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공언어(公共言語)로 표현될 경우 오해의 소지를 줄이게 될 것이고 그 효과는 커지게 될 것이다.²⁹⁾

3. 경계 넘기: 전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지나라. (Evangelize and Take social responsibility)

성경은 인간 창조를 포함한 모든 창조세계의 영역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증거한다(롬11:36)(김규보, 2021a: 341)

그리스도인은 제자직(Discipleship)과 시민직(Citizenship) 사이에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세속사회의 시민이다(김동춘, 2002: 121).

28) Sider, Ronald J. (2008). The Scandal of Evangelical Politic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9) “동성애나 성전환의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묻는 경우에,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시민사회로부터는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의 언어를 사용하여 기독교의 관점을 말하는 것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의 정체성에도 부합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문시영, 2009: 220)

웬함(G. Wehham)과 밀그롬(J. Milgrom)은 레위기 19장 주석에서 18절에 나타나는 사랑이 11절부터 계속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거룩함의 핵심으로서 레위기 19장의 문학적, 신학적 정점을 형성한다고 본다.(조정호, 2020: 126)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한 돌봄과 섬김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브루그만(W. Brueggemann)은 예배를 성경윤리의 한 요소로서 하나님 닮기라는 주제로 연결시켰고, 클레멘츠(R. E. Clements)는 하나님의 백성은 충성스런 예배자 집단인 동시에 양심적,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기준이 서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말한다.(이사야, 2015: 300; Brueggemann, 1999: 70-88; Clements, 1995: 85 참조)³⁰⁾

최근에 연구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칭의(稱義) 교리에 대한 재고를 언급한다. 칭의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고 만다는 지적이다. 그렇다 보니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간주하는 구원파(救援派, Salvation Sect)라는 이들과는 구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³¹⁾ 이들이 지적하는 것은 칭의의 개념의 확장의 필요성이다. 칭의가 단순히 개인의 의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공동체적 관계로 확장되어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J.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는 칭의(Justification)³²⁾가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 차원을 지닌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칭의가 사회적 성격을 지닌다는 의미가 개인적 차원의 칭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조심스럽게 말한다. “우리의 논증이 교정적 의도를 가질 것임을 염두에 둘 때, 칭의가 오직 사회적 성격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30) Brueggemann, W. (1999). “The Role of Old Testament Theology in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Edward Baal ed. (1999). *Search of True Wisdom: Essays in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in Honour of Ronald E. Clement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70-88.; Clements, Ronald E. (1995). “Worship and Ethics: A Re-examination of Psalm 15,” Rogerson, Davies and Carroll ed. (1995). *Bible in Ethic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78-94.

31) 김세윤 교수는 “칭의론을 법적 의미로만 해석하여, ‘무죄 선언’이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관계론적으로 제대로 해석하여 실제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구원의 조건이 되는 칭의를 단순한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 ‘하나님 나라 완성에 참여하기’의 뜻으로 이해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요구하고 또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김세윤, 2013: 285-287).

3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선교학자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는 영어 성경이 헬리어 ‘디카이오수네’(dikaiosune)를 ‘의’(righteousness)로 번역함으로써 그리고 그 결과 내적이고 영적인 의를 사회적 관계에서의 외적이고 명시적인 정의(justice)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그동안 얼마나 큰 해를 입혔는지를 지적하였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함정에 빠질 소지가 적은데, 그것은 ‘디카이오수네’를 번역할 때 ‘후스띠시아’(Justicia)라는 한 단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디카이오스’(dikaios)를 영어로 번역할 때 서로 다른 단어인 righteous와 just를 사용하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디카이오수네’는 ‘의’로 일관성 있게 번역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체덱’(tsedeq)은 ‘정의’와 ‘의’로 번역함으로써 그리고 정의를 외적이고 정치적인 프로그램으로 각각 나누는 정신적 분리 현상에 빠지게 했다. 그런데 이런 이분법을 수용하는 것은 복음을 포기하고 세속 문화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다.”(Newbigin, 2005: 169)

기존의 개인주의적 칭의론의 오류를 뒤집으려는 것이 필자[H. Yoder]의 의도가 아님을 다시금 밝혀 두어야겠다. 필자가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통적 교리를 논쟁의 상황에 적용하는 특정한 방식, 곧 윤리적 사회적 차원들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이 칭의 개념을 활용하려는 입장이다. 잊혀진 사회적 차원들을 재발견한 학자들을 연결한다고 해서 필자가 칭의의 개인적 차원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근 몇몇 서구적 전통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칭의의 개인적인 차원을 다른 차원들과 구분하여 추상적으로 다루는 것이 과연 칭의의 개인적 차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인지 의심스럽다.”(Yoder, 2007: 369–370, 11장 2번 각주). 칭의를 “개인적인 구원 체험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Bouma–Prediger, 2011: 310). 그렇다면 요더가 칭의에 있어서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칭의를 개인적 차원에서 강조할 경우에 윤리적 사회적 차원들을 배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칭의와는 달리 사회적 차원에서의 칭의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칭의는 윤리적 사회적 차원들을 포함한다. 즉 사회적 차원의 칭의는 사회적 책임으로 나아가게 한다. 칭의는 성화로 이어져야 한다. 성화는 영화로 지속되어야만 한다. 즉 우리의 구원은 칭의로 끝나지 않고 성화의 삶과 더불어 영화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³³⁾ 그렇다면 믿음이란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구체적인 행위(實踐, praxis)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며 또 칭의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을 지난다면 성화와 영화로 이어지는 구원의 여정(旅程)에서 계속적으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믿음이 단순히 개인적 칭의로 끝난다면 그 복음은 『구멍 난 복음(The Hole In Our Gospel)』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Stearns, 2010)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사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의미를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 리처드 스텐스(Richard Stearns)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사람이 달라지는 정도에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믿음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세상과 공적인 관계도 달라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따라와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적 믿음이 외부로 적극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멍 난 믿음이다. 조니 캐쉬[Johnny Cash, "No Earthly God."]는 이렇게 노래했다. “천국 생각만 하는 당신, 땅에선 아무 쓸모가 없어.” 이런 사람에 대한 사도 야고보의 생각은 분명했다. 그의 과감한 요구를 들어 보라.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약2:18). 당신의 믿음을 공적인 것으로 만들라는 의미이다.(Stearns, 2010: 13).

33) “우리는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임재를 통해 성화(sanctification)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성화는 개인의 내면에 머물지 않고, 신앙공동체와 사회로, 더 나아가 피조세계로 확장될 수 있다.”(윤영돈, 2022: 64)

칭의가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서정(Ordo Salutis, 救援序程)은 단순하게 칭의로 끝나지 않고 성화로 이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 이웃/사회/세계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다. 칭의가 개인적 차원에서 정체되지 않고 사회적 차원을 지님과 동시에 성화의 과정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거룩하라’는 ‘경계 짓기’는 자연스럽게 ‘전도하라’는 대위임명령(The Great Commission, 마28:18-20)을 통해 경계(境界)를 넘게 된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 것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개인의 구원에만 한정된 구원의 사사화(私事化)에 만족할 수 없으며, 더 넓은 사회의 일상의 삶 속으로 나아가야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부름 받은 사명을 다해야 한다.”(박태현, 2021: 236)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무성함보다는 열매의 견실함이다. 화려하지만 무책임한 영적 언어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삶의 무게를 드러내는 것이다.”(권연경, 2013: 995)

1) 선교/전도적 삶을 통한 경계 넘기

전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명령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J. 세베리노 크로아토(J. Severino Croatto)도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 것이다.

“크로아토(J. Severino Croatto)는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루트를 따라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독특한 루트가 바로 ‘선교’라고 지적하고 있다.”(신경규, 2015: 156; Croatto, 1987: 57 참조)³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전도하라는 것이었다.(마28:19-20; 행1:8 참조)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9-20, <개역개정>), “Go and make followers of all the nations. Baptiz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Matthew 28:19, <NLV, New Life Version>, “So go and make followers of all people in the world.” <ERV, Easy-to-Read Version> 참조),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개역개정>)” 『뉴라이프버전(New Life Version)』은 이 구절에 대해서 “가서, 모든 이들을 팔로워라 만들어라”(Go and make followers of all the nations)로 옮기고 있는 것을

34) Croatto, J. Severino (1987). *Biblical Hermeneutics: toward a Theory of Reading as the Production of Meaning*. Maryknoll: Orbis.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왜 전도하라는 명령이 '경계 넘기'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전도/선교는 디아코니아(Diakonia, διακονια, 섬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실천되어 왔기 때문이다. 전도의 대상은 교회 공동체 밖에 소속된 사람이다. 경계 짓기 밖의 경계 너머에 있는 외부인인 것이다. 경계 밖의 외부인들과 접촉점을 갖기 위해서는 경계 넘기의 과정을 걸치는 것은 필연적이다.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 경계 넘기를 함으로써 자아(自我)는 비아(非我/他者)와 만나게 된다. 전도의 목적이었던지, 아니면 전도의 수단이었다던지 아니면 이와는 무관하든지 간에 섬김(디아코니아)의 실천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거 섬김의 목적에 대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 간의 대립하는 부분이기도 하다.(이처럼 전도와 사회적 해동을 나누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습관적 분리 Customary Divorce”로 표현하기도 한다.[박보경, 2019: 208]). 보수주의자들은 전도에 강조점을 두어 디아코니아는 전도의 수단으로 전도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⁵⁾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을 보인다. 디아코니아의 성격에 관한 이러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통전적 또는 총체적 선교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통전적 선교모형(서정운, 1992: 41)은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교의 개념에 S·S(사회적 봉사, Social Service)와 S·A(사회적 행동, Social Action)을 포함하게 된 것이다. 통전적 선교모형(統全的宣教模型)의 개념은 $M=P·S+S·S$ 라는 공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선교(宣教, Mission)는 인간 구원(人間救援, P·S: Personal Salvation)과 사회봉사(社會奉仕, S·S: Social Service)로 구성되고 본다. 이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되어 진다. $M=E+N+S(S·S+S·A)+F$ 가 그것이다. 이는 선교(Mission)라는 것은 전도(E: Evangelism)와 양육(N: Nurture), 그리고 봉사(S: Services)와 친교(F: Fellowship)로 구성된다. 물론 여기서의 봉사(S: Service)의 개념은 사회봉사(SS: Social Service)와 사회행동(SA: Social Action)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5) 이와 비슷한 논쟁은 의료에서도 나타난다. 세브란스병원 건축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1899년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간 에비슨은 병원건립을 위한 기금 1만 달러를 세브란스로부터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세브란스의 추가 기부로 문제가 되던 대지 문제도 해결하고 건축가 고든의 도움으로 도면까지 확보해 병원의 건축만 남은 시점에서 병원건립에 제동을 건 것은 다름 아닌 평양의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은 고든이 설계한 병원이 지나치게 화려하며, 또 그러한 큰 병원의 건립은 기독교가 영혼을 구하는 복음선포가 아니라 단순히 자선사업을 하는 단체로 사람들을 오해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병원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만 달러 중 병원건립에는 5천 달러만 사용하고 나머지 5천 달러는 복음전도사업에 써야한다며 뉴욕의 선교본부에 진 정서를 보내기까지 하였다. 이 사태는 기부자 세브란스가 자신은 병원건축을 위해 1만 달러를 기부했으므로 병원건축에 5천 달러를 쓴다면 5천 달러만 기부하겠다고 단호히 말함으로써 해결되었지만 의료사업의 의의에 대해 선교사 내부에 존재했던 다른 견해들의 충동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여인석, 2007: 113-114)

[그림: 통전적 선교모형]

$$M=P \cdot S+S \cdot S.$$

$$\text{또는, } M=E+N+S(S \cdot S+S \cdot A)+F.$$

* M(선교, Mission) PS(인간구원, Personal Salvation) SS(사회봉사, Social Service)
E(전도, Evangelism) N(양육, Nurture) S(봉사, Services), SA(사회행동, Social Action) F(친교, Fellowship)

자료: 서정윤, 1992 내용 정리함

섬김이 선교의 수단인가 목적인가? 선교와 섬김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다. 처한 현실에서 어느 부분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느냐가 문제가 될 뿐이다. 실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현실 상황 속에서 어느 것을 상대적으로 강조할 것이냐 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 오늘날 반종교적 사회 분위기에서 사회적 공신력을 잃은 기독교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전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길가에서 외치던 노방전도는 부정적으로 인지되고 있을 지경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전도하라는 경계 넘기는 어떤 모습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일까? 지속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참고로 로널드 J. 사이더(Ronald James Sider)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구술적 선포가 복음 전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 중 하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때 예수님이 그에 답하는 최고의 실례가 된다.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모든 것은 그가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그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신 것이다. 성육신하신 하나님(말씀과 행동의 완전한 결합)은 구술적인 선포와 가시적 증거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다.”(Sider, 2013: 253-254) 아시시의 프랜시스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는 다음과 같은 권면도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필요할 때만 말하십시오.”(성 프랜시스 아시시 St. Francis Assisi의 말; Burchett, 2006: 248 재인용)

2) 청지기 삶을 통한 경계 넘기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사상으로 대표되는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듣는 복음’도 필요하지만 ‘보이는 복음’은 더더욱 필요하다.”(김승호, 2019: 32)

복음은 내면의 영적 갱신만이 아니라, 창조세계를 포괄하는 삶의 전 영역을 새롭게 하는 변혁적 창조를 가져온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담지자인 교회를 다가올 미래의 구원기관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이 땅에서 선취적으로 구현하는 사회적 책임의 주체가 된다.

그런데 교회의 사회적 책임행위는 시대상황적 조건 아래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김동춘, 2002: 99)³⁶⁾

전도하라 위임명령과 다른 형태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문화명령(또는 창조명령, The Cultural Mandate, 창1:28; 2:15)으로 알려진 ‘생육하고 번성하라’(“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NIV, ‘청지기로 살아라’)는 명령에 근거해서 세상/사회 속으로 경계 넘기[越境]를 하게 된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이웃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웃사랑은 세상 속에서 청지기적 삶을 실천함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28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8, <개역개정>)³⁷⁾

문제는 과거 문화명령의 적용과 실천에 있어서 오해(misinterpretation)가 있었다는 것이다.(김광연, 2018: 25 참조). ‘서구=기독교’라는 환원적인 이해도 중요한 역할을 일부 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일반적인 지적은 바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즉 ‘정복하고 다스리라’(subdue and Rule over, NIV; govern and Reign over, [NLT, Tree of Life Version], conquer and Rule over, [TLV, New Living Translation])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양산하게 됨으로써 자연을 착취(擄取)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화이트 명제(The White’s Thesis)로 알려진 린 화이트 Jr.(Lynn T. White Jr. 1907-1987)에 의해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기독교가 지닌 인간 중심적 세계관(anthropocentric worldview)으로 말미암아 환경파괴의 사단(事端)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⁸⁾ “화이트는 ‘서구의 기독교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36) “천지개벽(天地開闢)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갱생(regeneration)인가 혹은 갱신(renewal)인가? 종말의 단절적 양상에 대해서는 예수의 감람산 강화, 베드로후서 3:1-14, 요한계시록 4-22장 등이 고도의 상징과 비유 언어를 사용해서 묘사한다. 하지만 신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종말 개념어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공관복음에 산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건과 가르침들에 비추어 결론을 내리자면 예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그분의 다시 오심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시작된 종말론(inaugurated eschatology)을 전제한다면 종말에 새로운 지구의 탄생을 고대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 생태계가 바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터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 인식 위에 창조세계의 온전함을 보전하려는 노력은 주기도문에 대한 응답적 삶의 한 표현이 될 것이다.”(조재천, 2022: 98-99)

37) “And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un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and subdue it: and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fowl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th upon the earth.”(Genesis1:28, KJV)

38) “기독교는 세계 역사상 가장 인간 중심적(anthropocentric) 종교이다.”(조재천, 2022: 85; White, 1967: 1206 참조)

종교보다도 인간 중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발달한 기술 과학 문명이 자연 파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즉,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을 확립하고 인간이 자기의 목적에 맞게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한다. 화이트는 현재의 과학과 기술이 정통 기독교의 자연에 대한 오만함에 너무나 물들어 있어, 과학 기술만으로 생태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단언한다.”(이은우, 2012: 11; White, 1967: 1206; 김필균, 2020: 49; 이명석, 2020: 250-251; 김용복, 2022; 성경훈, 2021: Boff, 1996: 51-52)³⁹⁾.⁴⁰⁾.⁴¹⁾.⁴²⁾ E. 드레버만(E. Drewermann)은 “창세기 1:26 이하의 ‘하나님의 형상’(첼렘 엘로힘)과 ‘땅의 지

39) 린 화이트는 “[생태계 위기의]뿌리가 대부분 종교적이기 때문에, 치료 역시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부르든 관계없이, 종교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기쁨, 2003: 5) 유기쁨 (2003). “생태주의의 도전과 녹색 기독교의 전망-개신교 생태담론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23. 149-176.(다운받은 pdf의 페이지 수는 1-17)

40) White Jr., Lynn (1967).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55. 1203-1207.; “창세기 1장 26-28절의 말씀에 언급된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라는 메시지를 지배로 이해하고 자연을 노예화하는 것을 인간 사명으로 오해하도록 만든 책임이 그리스도교에 있다는 것이다(보프, 1996: 51-52). … 보프는 자신의 생태신학을 전개하면서 창세기 2장 15절의 의미를 강조한다.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한 후 에덴동산으로 데려가 그곳을 ‘가꾸고 돌보도록’했다는 부분을 예로들며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역할이 지배자가 아닌 책임 있는 ‘관리자’나 ‘수호천사’, 또는 ‘파수꾼’임을 강조했다(보프, 1996: 39-52)”(조영현, 2022: 152) Boff, Leonardo (1996). 『생태신학』. 김항섭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41)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화이트가 말하는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특정화된 계몽주의 시대 이후의 서구 기독교와 그것으로 인해 파생된 과학기술이라는 점이다.”(이명석, 2020: 251); 박찬호 교수는 중세 신학이 오늘날 생태계 위기의 원인이라는 린 화이트의 주장에 대하여 세 가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였다. 첫째로 기본적으로 창 1, 2장에 대한 바른 주해는 화이트의 주장처럼 오늘날의 생태계 위기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인 인간의 자연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화이트의 주장은 창 1, 2장에 대한 잘못된 주해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근대 자연과학의 태동의 원인으로서의 중세신학에 대한 탐구는 너무나 복잡하여 탐구자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게 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오늘날의 생태계 위기라고 하는 것이 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한 것이고 이 과학기술의 출처가 바로 중세의 기독교 신학이라는 화이트의 주장이 역사적인 사료들과도 잘 맞지 않는 주장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기독교 사회였던 서구의 발전이 탈기독교화 과정을 거쳐 세속화되는 과정에 우리가 주목한다면 오늘날의 생태계 위기의 원인이 기독교창조론이 아니라 도리어 기독교창조론을 버린 것이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박찬호, 2021: 87-88)

42) 김용복은 자신의 연구에서 생태적 의미와 관련하여 세 가지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청지기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할 존재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생태명령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인간의 죄는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형태로, 수평적 관계에서 다른 피조물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는 것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사회적 죄, 생태적 죄를 죄 자체로 보아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행위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미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김용복, 2022)

배'(dominum terrae)에 대한 개념이 자연을 단순한 착취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고, 환경위기를 일으켰다고 주장한다.”(이은우, 2012: 10-11) “앨런 W. 와츠(Alan W. Watts)는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자연에 반하는 종교는 아니지만 자연과는 맞지 않는 도시풍의 종교로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을 변형하도록 부추겨왔다고 주장한다. 토인비는 위기의 원천을 무조건 자연을 비신성화하는 유대-기독교의 유일신관에 있다고 비난한다. 그리고 유일신관을 자연을 경외하는 범신론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필균, 2020: 49-50, 3번 각주; Watts, 1970: 25-53; Toynbee, 1974: 137-149 참조)⁴³⁾

그렇다면 과거에 오해되어졌던 문화명령과 관련된 구절에 대해 어떻게 해석/이해해야만 하는 것일까? 신 중심적(神中心的) 청지기직(theocentric stewardship), 즉 “하나님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며 만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견해를 기초로 해서 인간은 자연에 대해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세계관”에 근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된다.(이현모, 2020: 287-288)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도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에 관한 새로운 해석뿐만 아니라 창조신앙으로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김광연, 2018: 19) 그런가 하면 문화명령에 관한 구절에 대한 해석은 가까이 있는 창세기 2장 15절 등과의 관계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현모, 2020: 298)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창조 기사에 보완적 내용이므로 연계시켜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정복하다”와 “다스리다”에 대응하는 구체적 내용 부분으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므로 피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조화로운 관계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청지기 직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이현모, 2020: 298)

먼저 과거 잘못 해석되어진 창조명령 단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정복하라(‘kabash’)와 다스리라(‘radah’)⁴⁴⁾는 단어들에 착취를 허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다스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רָדָה (라다)의 번역인데, “이 말은 원래 고대 이집트와 바벨론의 궁중 언어로서 ‘돌본다’는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한다.(이은우, 2012: 21) 이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엘로힘 체렘)’이라는 단어와 연결될 경우 자연을 돌보는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드러낸다고 한다.(이은

43) Watts, Alan W. (1970). *Nature, Man, and Woman*. New York: Vintage. 25-53; Toynbee, Arnold (1974). “The Religious Background of the Present Environmental Crisis,” David and Eileen Spring, eds. *Ecology and Religion in History*. New York: Harper & Row. 137-149.

44) “히브리어 ‘kabash’와 ‘radah’는 각각 70인 역에서 ‘katakurieuo’와 ‘archo’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영어 표현 역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윤영돈·최순옥, 2017: 188)

우, 2012: 21) ‘땅을 정복하라’는 표현에서 ‘정복하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כָּבַשׁ**(카바쉬)의 경우도 착취와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몰트만의 표현대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이 ‘정복’은 자연의 억압과 착취와 파괴를 의미할 수 없다.”(이은우, 2012: 22) “‘정복하라’는 말은 자연에 대한 파괴와 착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돌보고 가꾸면서 자연의 소산물을 먹고 많은 자식을 낳고 건강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축복 선언의 연속이다.”(이은우, 2012: 22) 그래서 『The Voice』 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산(estate, 토지)의 신탁자로 삼았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보살피기(so care for)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⁴⁵⁾ 장윤재 교수도 다스리라와 정복하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던 것이다. “... 땅을 ‘정복하고’(kabas), ‘다스리라’(rada)는 말은 자연을 착취하고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 그것은, ‘일하고 봉사하고 지키고 돌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성서에 있는 두 번째의 창조 이야기, 즉 에덴동산의 이야기(창2:4-3:24)을 보면, 인간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땅을 경작하는 겸손한 농부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아담(Adam) 즉 인간을 ‘아다마(Adama) 곧 흙을 재료로 창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농부’로 그리고 아다마를 ‘농지’로도 번역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농토에서 농부를 지은 것이다.) 에덴동산에서 농부로서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다스리고 정복하라가 아니라 ‘경작하라’(abad)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땅에 대한 인간의 소유와 지배가 아니라 땅에 대한 인간의 돌봄이다. 인간은 생태계의 주인이 아니라, 겸손한 참여자요 관리자여야 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본래의 성서적 인간관이다.”(장윤재, 2009: 328. 강조는 본 연구자). 전현호 교수나 이은우 경우도 같은 의미의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땅을 정복하여라’는 히브리어 원문 카바스(kabas)와 ‘모든 짐승을 부려라’는 라다(radah)는 당시 근동 지방의 왕이 자신의 영토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의 안녕을 위한 책임의식 아래 지배하고 통치했던 것과 정복과 지배의 대상을 보호해야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지밧아 파괴하고 죽여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지밧아 파괴하고 죽여 없애버리고 나면 지배할 대상조차 없어지고 말기 때문이다.”(조현호, 2011: 375). “특히 창세기 1장 26-28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나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동사 역시 억압하고, 착취하고 파괴하라는 구약 주변 세계의 전제 군주적 제왕신학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히브리식 민주적 개념에 기인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것처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길 것을 명하는 표현이다.”(이은우, 2012: 27)

45) “Then God blessed them and gave them this directive: ‘Be fruitful and multiply. Populate the earth. I make you trustees of My estate, so care for My creation and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the birds of the sky, and every creature that roams across the earth.’”(VOICE, The Voice, 강조는 본 연구자, “Prosper! Reproduce! Fill Earth! Take charge! Be responsible for fish in the sea and birds in the air, fo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s on the face of Earth.”, MSG, The Message)

문화명령(창1:28)에 대한 이해는 뒷부분에 나오는 창세기 2장 15절과의 관계 살펴볼 때도 문화명령이 청지기적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창2:15, <개역개정>),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창 2:15, <새번역>)”⁴⁶⁾ “‘지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르’(שמר) 동사는 창세기 2장 15절의 문맥으로 보아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김필균, 2020: 51)⁴⁷⁾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피조 세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문화명령이 착취와 남용보다는 선한 청지기적 삶과 더욱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경작하다’(아바드, עבד, ‘abad, dress till, and cultivate)는 단어의 경우도 그 의미는 “봉사하다,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윤영돈최순옥, 2017: 197)

더욱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곳[이 세상, here and now]이 다시 올 그리스도의 역사의 터전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창조의 역사는 그리스도 복음의 메시아 역사와 이어진다. 다시 올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금 우리의 터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의 역사는 우리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질 지속적인 창조이자 동시에 궁극적 창조이다. 이 창조세계는 궁극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존재한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 공간, 곧 이 곳에서의 삶은 그리스도 재림의 터전이다”(김광연, 2018: 33)

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롬8:19-22, <개역개정>)

20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써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골1:20, <공동번역 개정판>)

46) עֲבַדְתָּ לָא אֱלֹהִים אֲחֵרִים וְשָׁמַרְתָּ אֶת-הַגֵּן הַזֶּה וְאֶת-עֵץ הַיָּדָע וְאֵת-הַיֶּשֶׁבֶט וְשָׁמַרְתָּ אֶת-הָאֵרֶץ

47) “עֲבַדְתָּ לָא אֱלֹהִים אֲחֵרִים וְשָׁמַרְתָּ אֶת-הַגֵּן הַזֶּה וְאֵת-עֵץ הַיָּדָע וְאֵת-הַיֶּשֶׁבֶט וְשָׁמַרְתָּ אֶת-הָאֵרֶץ”(경작하며[아바드, ‘abad: till, dress and cultivate] 지키게[샤마르, shamar: keep, care for, tend] 하시고, <개역개정>), “And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tend and guard and keep it.”(2:15, [AMPC, Amplified Bible, Classic Edition]), “And Jehovah God taketh the man, and causeth him to rest in the garden of Eden, to serve it, and to keep it.”(YLT, Young's Literal Translation)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할 것은 주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4:10, <개역개정>,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새번역>, 영어 성경은 보편적으로 ‘good stewards/mangers/servants’으로 표현하고 있다. 참고로 EXB (Expanded Bible)는 ‘Be good ·servants[stewards; managers] of God’s various gifts of grace Rom.5:15–16;6:23.’, 헬라어는 καλοὶ οἰκονόμοι, kaloi oikonomoi로 표현되어 있다)

청지기를 의미하는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는 ‘경제’(oikonomia, Ökonomie, economy)라는 단어와 어원을 공유하지만 청지기적 삶의 영역은 경제에만 제한적이지 않고 다양한 영역 즉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서는 청지기를 ‘오이코노모스’(οικονόμος)라 하여 가정의 일을 집행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특히 ‘경제’라는 말은 헬라어 ‘오이코노미야’(οικονομία)에서 오는 데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적의 중요한 부분이다. 단지 경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질서와 관계되고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의미를 가진 것을 청지기라는 한 단어가 내포하고 있다.”(김필균, 2020: 53; 송준인, 2010: 19 참조)⁴⁸⁾ 문화명령이 내포하고 있는 청지기적 삶은 세상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대상이 언약 공동체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성민 교수가 공의의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청지기적 삶은 언약 공동체에 속하느냐와는 무관하게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사회정의의 규정은 주로 신앙공동체 구성원의 어려움을 헤아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질적 필요를 채워주고 너그럽게 공의를 베풀 대상은 동일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 국한되지 않았다. 즉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었다.”(김성민, 2017: 100; Keller, 2016: 105 참조)⁴⁹⁾

앞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 사랑이라는 명령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경계 짓기를 하게 된다.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로서 정체성을 짓게 되는 것이다. 이웃 사랑으로 확대되어 진다. 영혼에 대한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웃 사랑은 문화명령에 입각하여 청지기적 삶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인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와 청지기적 삶을 통해 경계를 넘어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신사회의 위협으로 지적되고 있는 빈곤과 실업의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주거문제, 그리고 환경파괴

48) 송준인 (2010). 『개혁주의 생태신학』. 서울: 선학사.

49) “우리는 칼빈의 ‘하나님의 이중적 인식’(the duplex cognition Dei)이라고 하는 창조자(Creation)와 구속자(Redeemer)로서의 하나님을 우선 인식해야 한다.”(김은홍, 2008: 178).

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문제 등(성신형·김성호, 2016)에 대해서 창조세계에 대한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III 나가는 말

1. 월경하기, 경계 짓기와 경계 넘기사이에서 오가기

사랑하라는 대명령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거룩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경계 짓기로 드러나게 된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이웃을 또한 향하게 되는데 대위임명령인 선교와 전도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또는 문화/창조명령인 청지기적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전도하고 청지기적 삶은 세상 즉 경계 밖을 향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경계를 넘어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게 된다. 이웃 사랑으로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심에 대한 인정이며, 이웃 사랑으로 청지기적 삶을 감당하는 것은, 즉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팔라워인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통한 경계 짓기로 머무른 삶이 아니라, 전도의 삶과 청지기적 삶을 통해 경계 넘기로 월경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다.

2. En To Christo(ἐν τῷ Χριστῷ)

과거 보수주의자들이 경계 넘기를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계 넘기로 인해서 복음/믿음의 순수성에 흠이 생기기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사회적 책임의 실천의 한 행태인 사회복지(디아코니아) 실천의 목적을 두고 다양한 의견/갈등/대립이 존재한 이유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정치 참여의可否/찬반/여부로 인해 다양한 의견의 존재와 더불어 심각한 대립/분열의 이유이기도 했었다. 이러한 경계 넘기에 대한 우려(憂慮)는 기우로 끝날 수도 있고 앞으로 닥칠 현실일 수도 있다. 기우(杞憂)가 기우로 끝나게 하는 안전장치는 없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자주 사용한 용어인 ‘그리스도 안에(en [to] Christo)’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팔라워인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대한 자기 점검(點檢)은 자신이 경계 안에 있음—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는—을 확인/檢證하게 해 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왜 자신이 경계 넘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에 대한 자각은 『논어(論語)』의 『자로편(子路篇)』에 나오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Αμὴν· ἔρχου,

κύριε Ἰησοῦ.(Amēn. erchou, kurie Iēsou. 계22:20)!”

참고문헌

- 강상우 (2022). “기독교 사회복지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관한 소고: 사회복지 앞에 붙는 ‘기독교 (Christian)’라는 수식어가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교회교육·복지실천 연구』 . 4(2). 22-48.
- 강상우 (2021). 『이슬람 다시보기: 극단적 환원주의 도식 뛰어넘기』 . 서울: 지식과 감성.
- 강상우 (2017). “실천목적에 따른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유형에 관한 소고”. <춘계학술대회>. 통권 24호. 1-31; <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2766>.
- 강상우 (2011a).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사회복지실천모형: 성경해석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 16(1). 7-36.
- 강상우 (2011b). “수용·거부·변혁 과정-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 A.R.T 과정”. <춘계학술대회>; <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1036>
- 권연경 (2013). “종교적 위선에 관하여”. 『신약연구』 . 12(4). 964-997.
- 김광연 (2018:). “선교신학적 과제와 전망: 창조세계와의 사귄과 섬기는 지배자로서의 인간상 회복”. 『복음과 선교』 . 41. 13-43.
- 김규보 (2021a). “죄 진단을 위한 기독교 병리학 체계와 치료적 함의”. 『신학과 실천』 . 76. 339-366.
- 김규보 (2021b). “기독교 상담의 텔로스: 기독교 아비투스로서의 상담을 위한 성경적 세계관”. 『성경과 신학』 . 98. 33-70.
- 김동춘 (2002). “교회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디아코니아”. 『기독교신학저널』 . 3. 99-126.
- 김성민 (2017). “기독교 사회정의의 통한 사회통합적 선교전략 연구.” 『복음과 선교』 . 37. 81-125.
- 김세운 (2013). 『칭의와 성화』 . 서울: 두란노.
- 김승호 (2019). “21세기 복음주의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복음과 선교』 . 48. 9-41.
- 김용복 (2022). “환경파괴와 생태신앙에 대한 조직신학적 반성과 재해석” 『신학과 사회』 . 36(4). 117-147.
- 김용화 (2013). “낙태죄와 낙태권에 대한 소고” 『嘉泉法學』 . 6(4). 147-180.
- 김은홍 (2008) “선교의 통전적 이해를 통한 기독교 사회 복지”. 『성경과 신학』 . 46. 173-208.
- 김창현 (2013). “게토, 유토피아, 대동사회-다문화사회를 위한 인문학적 고찰” 『溫知論叢』 . 35. 363-388.
- 김필균 (2020). “환경 청지기의 돌봄과 선교적 함의”. 『복음과 선교』 . 49. 45-80.

- 김희수 (2016). “H. Richard Niebuhr의 신학과 윤리학의 공공신학적 토대”. 『기독교사회윤리』. 34. 11-39.
- 나영정·김지혜·류민희·이승현·장서연·정현화·조혜인·한가람 (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조사 최종보고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504AE35544E09D62B>
- 문시영 (2009). “웹2.0의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교회의 윤리적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18. 199-227.
- 박보경 (2019). “르네 파딜라(Rene Padilla)의 총체적 선교 연구”. 『복음과 선교』. 46. 199-231.
- 박보경 (2008). “선교적 해석학(Missional Hermeneutics)의 모색”. 『선교신학』. 18(2). 77-108.
- 박성호 (2022). “로마인과 유대인: 자기 인식과 타인 인식에 따른 정체성 문제에 대한 소고”. 『신학과 사회』. 36(4). 69-116.
- 박찬호 (2021). “기독교 창조론과 생태계 위기: 린 화이트의 주장에 대한 세 가지 반론”. 『조직신학 연구』. 37. 62-92.
- 박태현 (2021).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의 현대적 의의 : 교회와 국가 관계의 관점에서”. 『개신과 부흥』. 28. 215-248.
- 서정운 (1992). “선교신학에서 본 사회봉사”.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한울.
- 성경훈 (2021). “창세기 2장 15절은 개발 명령인가? -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의 관점에서 보는 문화 명령”. 『통합연구』. 23. 64-73.
- 성신형·김성호 (2016). “한국적 신사회위험에 대응하는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방안 연구 =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39. 179-212.
- 신경규 (2015). “선교해석학적 관점에서 본 복음주의의 두 기본 신학”. 『복음과 선교』. 29. 151-187.
- 신광철 (2022). “신화-제의 공동체의 관점에서 본 BTS 성지순례 현상”. 『신종교연구』. 47. 1-28.
- 신광철 (2019). “성지순례 개념의 확장성에 대한 연구—콘텐츠 투어리즘의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32. 69-92.
- 신영현 (2016). “미국의 동성혼 관련 판결의 분석과 함의”. 『嘉泉法學』. 9(3). 149-182.
- 엄익란 (2015). 『금기, 무슬림 여성을 엿보다』. 파주: 한울.
- 에드워드 아이런·이경원 (2022). “현대사회에서 유사종교적인 현상과 새로운 영성”. 『신종교연구』. 46. 51-88.
- 여인석 (2007). “한국근대 선교의료기관의 형성과 성격”. 『東方學志』. 139. 105-136.

- 우병훈 (2019). 『기독교 윤리학: 성경과 기독교 전통의 반석 위에 세워진 기초 윤리학』. 서울: 복 있는 사람.
- 윤영돈 (2022). “구약성경에 나타난 바달(badal)의 신학과 사회윤리적 함의”. 『기독교사회윤리』. 52. 41-83.
- 윤영돈·최순옥 (2017).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교의 자연관과 인간의 책임 문제”. 『환경철학』. 24. 183-204.
- 이명석 (2020). “생태학적 신학의 발전에 대한 탐구와 선교적 적용”. 『복음과 선교』. 50. 245-273.
- 이샤야 (2015). “구약의 땅과 사회윤리: 안식년과 희년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32. 277-305.
- 이영환 (2021). “‘사랑하라’는 명령은 성립가능한가?”. 『인간·환경·미래』. 27. 73-93
- 이은우 (2012). “창세기 1장 1절-2장 4a절의 수사적 구조에 나타난 생태윤리”. 『구약논단』. 18(2). 10-34.
- 이창희 (1998). “敎會와 社會福祉”. 『서울長神論壇』. 14. 300-323.
- 이현모 (2020). “피조세계도 선교의 대상인가?—복음주의 선교신학 관점에서 바라본 생태신학”. 『복음과 선교』. 49. 277-300.
- 이호상·남영우·김영호 (2010). “중세 베네치아 유태인 게토의 기원과 형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1). 109-121.
- 장윤재 (2009). 『세계화 시대의 기독교 신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전현호 (2011). “14장. 환경문제에 관한 신학적 고찰(考察)”. 『가능성과 한계: 지구환경과 인간의 삶을 한 눈에』. 서울: 위즈엔비즈. 373-397.
- 정은배 (2018). “이슬람 공동체 ‘움마’와 기독교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 연구”. 『복음과 선교』. 41. 233-286.
- 조수민 (2022). “‘BTS-ARMY’ 현상의 신화적 모먼트”. 『인문사회21』. 13(5). 2197-2208.
- 조영현 (2022). “신자유주의 시대 해방신학의 분화에 대한 연구”.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19(1). 137-165.
- 조재천 (2022). “생태해석학(eco-hermeneutics)의 가능성, 의의, 그리고 과정-신약학의 관점에서”. 『신학과 사회』. 36(1). 77-106.
- 조정호 (2020). “거룩함의 변주, 사랑”. 26(4). 『구약논단』. 126-154
- 차선자 (2017). “동성 간의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지원 방안 검토”. 『法學論集』. 22(1). 91-118.
- 함승수 (2020).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성서의 3대 명령에 기초하

- 여”. 『기독교교육정보』 . 64. 169-195.
- 홍순원 (2018). “청지기직의 교회 윤리적 수용”. 『신학과 실천』 . 61. 647-668.
- Bouma-Prediger, S. (2010). *For the Beauty of the Earth*. 김기철 역 (2011).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 복있는사람.
- Burchett, D. (2002). *When Bad Christian Happen to Good People* 김애정 역 (2006). 『니쁜 크리스찬』 . 선미디어.
- Horton, Michael S. (2002). *Where in the World Is the Church?*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Reformed Publishing. 윤석민 역 (2019).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 서울: 부흥과개혁사.
- Jaspers, Karl (1962). *Der Philosophische glaube Angesichts der Offenbarung*. München. 신옥희·변선환 공역 (1989). 『계시에 직면한 철학적 신앙』 . 분도출판사.
- Keller, Timothy (2010). *Generous Justice*. New York. 최종훈 역 (2016). 『팀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 서울: 두란노서원.
- Kernohan, A. (2008). *A Guide for the Godless: The Secular Path to Meaning*. 한진영 역 (2011). 『종교의 바깥에서 의미를 찾다』 . 서울: 필로소픽.
- Mouw, Richard J. (1992). *Uncommon Decency*. IVP. 홍병룡 역 (2004). 『무례한 기독교』 . 서울: IVP.
- Newbigin, Lesslie (1986). *Foolishness to the Greek*. Grand Rapids, MI: Eerdmans. 홍병룡 역 (2005).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요』 . 서울: IVP.
- Sider, Ronald J. (1993). *Good News and Good Works*. Grand Rapids: Baker Books. 이상원·박현국 공역 (2013). 『복음전도와 사회운동』 . 서울: CLC.
- Stearns, R. (2009). *The Hole in Our Gospel*. 홍종락 역 (2010). 『구멍 난 복음』 . 서울: 흥성사.
- Viola, F. and G. Barna, (2008). *Pagan Christianity?* revised and updated. Carol Stream, IL: Barna Books. 이남하 역 (2011). 『이교에 물든 기독교』 . 대전: 대장간.
- Yoder, J. Howard (1994). *The Politics of Jesus*. 신원하·권연경 역 (2007). 『예수의 정치학』 . 서울: IVP.